

# 안철수 “유승민, 햇볕정책 잘 모르는 것 같다”

### 광주지역 국회기자 간담회 “연대 위해선 상대 존중해야” 호남 중진 통합반대 여진 계속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호남 지역주의 극복과 햇볕정책 폐기’ 등을 주장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 대해 “연대를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유 의원이 햇볕정책에 대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26일 돌직구를 날렸다.

안 대표는 이날 광주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론과 관련한 유 의원의 발언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더 큰 길을 위해 참고 있다”며 “나는 그대로 있고 상대방에만 요구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안 대

표 측 관계자는 “당시 유승민 의원의 인터뷰 내용을 듣고 안 대표가 격분했었다”고 전했다.

안 대표는 특히, “내가 살고자 대표에 나선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당에서 요청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겠으며, 이미 나는 국민의당의 미래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통합론’과 관련, 안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합종연횡 시나리오가 있어 국민정책연구원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을 뿐”이라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지난 25일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바른정당과 정책 연대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선거연대 및 통합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며 “바른정당과 선거연대는 가능할 것으로 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실질적 3당 구

도를 만들어 호남 정신을 토대로 하는 국민의당의 전국 정당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광역단체장 경선 방법과 관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을 선호하지만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이를 결정할 것이며 늦어도 올해 내에 경선 방법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 문제와 관련, “일괄 사퇴 이후, 지역위원장 재선임 문제는 조직강화특위에서 투명한 룰을 만들어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 일괄 사퇴가 현실화 되더라도 재선임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호남 중진들을 중심으로 통합론의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호남 중진인 정동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가 통합한다면 ‘중도보수 야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중도보수 야당이 수도

권과 호남 등지에서 의석을 가질 가능성은 없다. 소멸한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위원장 일괄 사퇴에 대해 “독재적 발상이다. 야당 역사에서 그런 사례가 없다”며 “일각에서 안 대표의 퇴진과 비상대책위를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정배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안 대표가 말하는 가치와 정체성이 뭔지 모호하다”며 “안 대표가 등장한 지 두 달 정도 됐지만 가치와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자는 주장을 우물우물 뽕개면서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TBS 라디오에 출연, “바른정당과 통합은 끝난 것이냐”는 질문에 “안 대표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끈질김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감 브리핑

### 박지원 “전두환 회고록 등 5·18 왜곡범죄 엄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26일 광주·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 전두환 회고록 등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편향하는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특히 5·18에 대한 편향·왜곡 사건에 대해 광주시진상조사위원회 등에서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면 검찰이 수사를 한 뒤 광주지법에 기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상조사위에서 검찰에 고발해 기소된 건수가 어



떻게 되느냐”고 유남석 광주지법원장에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법원장은 “추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오후 열린 광주지검 국감에서는 양부남 광주지검장에게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광주로 출격했던 헬기 조종사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엄정한 수사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박지원기자 lucky@kwangju.co.kr

### 박영선 “수출입은행, MB정부 때 다스 특혜”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수은의 ‘다스 히든챔피언 선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수은은 지난 2009년부터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히든챔피언 제도를 도입해 선정된 기업에 금융지원을 해왔다.

박 의원은 “다스는 히든챔피언 선정을 위한 1, 2차 정량평가에서 43개 회사 중 꼴찌를 했지만, 3차 정성평가에서는 35등으로 히든챔피언에 선정됐다”며 “정량평가에서 꼴찌 했는데 이걸 (3차 정성평가로) 35등 안에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며 “고양이 앞에 생선 갖다 놓은 거다, 국책 은행에서 돈 가져



다가 이렇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란 사람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기 회사 대출받는데 이런 식으로 혜택 받아서 대출이자율도 낮추고,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라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수은이 지난 12년간 다스에 빌려준 금액이 60억원에서 664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다스 해외 현지법인에 209 억원을 신용대출 해주면서 모회사인 다스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 서청원·최경환·홍준표 귀국 박근혜 당 제명 주말 분수령

당 대부분의 중심에 있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이 귀국하면서 자유한국당이 폭풍권에 접어들었다.

서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26일 귀국했고 최 의원은 27일 귀국한다.

또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대표가 28일 귀국한다. 이들 3인이 모두 돌아오면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던 당내 갈등은 다시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대표는 귀국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제명 작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홍 대표는 당 개혁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이들 두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국세청 국감현장 26일 광주시 북구 오동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향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 한국당, 또 ‘국감 보이콧’

### 방문진 이사임명 반발

중반부에 접어들어 국정감사가 공영방송 문제에 불만을 품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국감 보이콧’ 결정으로 멈춰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론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를 강행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27일부터 국정감사에 전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한국당의 결정은 명분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2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KBS 등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여론 추천 몫인 유의선·김원배 이사 사퇴로 공석이 된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의 임명을 시도하자, 한국당이 극렬 반발하며 사

실상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 방통위를 형의 방문한 정우택 원내대표는 위원회 회의 강행하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문진 보궐 이사의 출속, 강행 처리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폭거”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긴급 의원 총회에 들어가 장교를 거둔 끝에 오후 6시 27일부터 국정감사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국감 일정은 물론 정기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당의 반발로 국감이 파행되는데 대해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역시 논평을 내어 “한국당의 주장은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 대변인은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빚어진 방송악역이나 적폐의 내용이 나오자 한국당이 상습적 국감 보이콧을 들고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병길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명분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여당 몫인 사람이 사임하면 현재 여당이 추천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논평했다.

최 대변인은 “한국당은 국감 다음날 있는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국감 인물

### 이개호, 쌀값 현실화·김영란법 농민 피해 대처 앞장

국정감사가 후반으로 접어들어 가운데 농업 현장의 아픔과 농민의 바람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활약이 빛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의 활약은 국감 직전 부친상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이뤄진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감 시작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자료를 통해 “20년 전으로 떨어진 쌀값 회복을 위해 시장격리 물량을 85만톤 이상으로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농민경제의 근간인 쌀값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을 우선적으로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2일 부친상으로 농식품부 국감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서



면질의 통해 “지난 2015년 농업인 안전보험 도입 이후 농업재해에 대한 농업인 사망자 1인당 지급액은 ▲2015년 1103만원 ▲2016년 1168만원 ▲2017년 1286만원에 그쳐 가장 낮은 유가족들이 생계를 잇기에는 터무니 없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산림조합중앙회 국감을 통해서 “김영란법 시행 1년 이후 설·추석 명절 임산물 소비가 2015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산림조합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원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중개법인**

#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조정가



토지 1497평 작가레지던스 건물 180평 캠핑장 추천 매매가 16억

####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감정가 25,143,000,000 건물 6008평 최저가 14,100,000,000

#### 【법원 경매/공매】

토 지	일 반 물 건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일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318,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해남 북평면 이진리 바닷가인근 교육시설 토지 3606평 건물 226평 감정가 273,000,000 최저가 273,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도로변 토지 659평 감정가 52,000,000 최저가 52,000,000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 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담양군 남면 만월리 만월제비마을 도로점 토지 4409평 감정가 30,000,000 최소가 30,000,000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업중 가능 매매가 17억
	▶광산구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구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등산자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태양광가능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일야 42000평
	▶신안군 중도면 우전리 일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